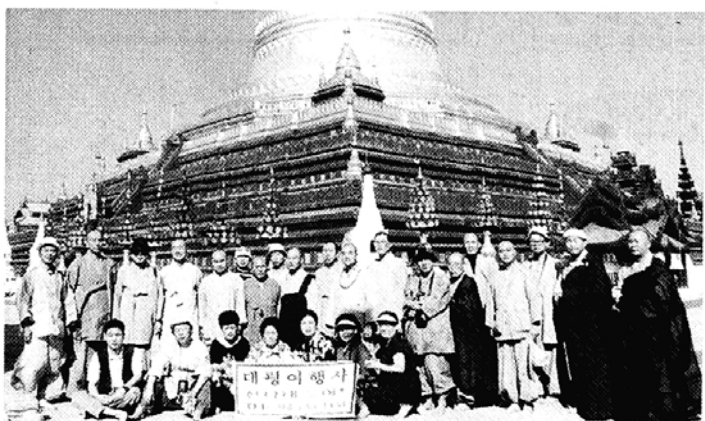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삶이 더욱 윤택해져요



1996년 6월 불암사 대중들을 비롯 도반스님들과 함께 미얀마 성지순례를 했 다.(오른쪽 두번째 태정스님)

을수록 성숙해 수행이 잘된다는 새로운 세계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마 깨달지 못한 법부로서 악업을 짓지 않는 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악육강식의 시대에서 삶이란 그 자체가 경쟁이요, 투쟁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먼저 이 뜻을 격정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참다운 불자의 삶입니다. 해인사에서 1년정도 왜 교무소임을 맡았습니까. 그후 중단 총무임을 비롯해 본사인 봉선사, 불암사 등에서 60여 년동안 각종 소임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

입니다. 인과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요. 그분의 용맹정진과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불자, 이끌어준 스승, 그리고 불교계 구석구석에서 정진하고 계시는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큰 깨우침을 얻었다해도 주위에 귀의해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내가 출가해 공부할 때 어른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약방에 감초처럼 꼭 필요한 수행자가 되라는 것이었

“좋은 보약보다 약방의 감초처럼 꼭 필요한 수행자 되자”

있는 수행이 돼야 하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력의 무상함을 절실하게 느끼고요. 그래서 나는 2년전부터 사경수행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주로 밤이나 새벽시간을 이용해 사경을 하고 틀나는대로 참선도 병행합니다. 요즘을 사경을 하는 신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경을 해야 할 스님들은 줄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수행의 한 방법이기도 사경은 스님들 공부에 필수과정에 속하는 것일뿐입니다. 세속에서 생활하는 신도들은 사경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에 가보니 신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열불만 하고 앉아 있더군요. 그리고 스님이 열불하다 틀리니 대뜸 '무슨 스님이 열불도 못하냐. 중도 아니다'라고 핀잔을 하더군요. 이것은 바로 교육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승단의 교육체계를 바로세우는 것

지 않고 영험한 도량만 찾아 나섭니다. 포교원을 운영하다보니 이러한 신도들의 의식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늙으막에 포교원하나 마련하고 그동안 못한 포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바로 가까운 이웃 포교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우선 저자거리의 포교원을 질로 여기지 않을 정도니까요. 오직 영험하고 큰 사찰만 절이고, 그곳에 계시는 스님만 스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위대한 법을 대하고 있으면서도 전체를 볼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백유경'에 나오는 장님 일화처럼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하나인데 자기 기준에 맞춰 마음대로 부처님을, 사찰을, 스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혹 스님들도 이와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참선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율만하는 사람이다. 선사는 강사보고 그것이 무슨 법문이나 강사는 선사보고 그런 법문이 어디 있느냐 율만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법입니다. 이 교법가운데는 선교유이 함께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선시불심(禪是佛心)이요, 교시불어(教是佛語)요, 율시불행(律是佛行)이다'는 부처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름지기 수행자는 결국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 마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있었기에 팔만대장경이란 교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배우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선·교·율의 다 하나로 부처님 법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인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두고 옮겨니 그르거나 하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달을 볼 줄 아는 마음이 제대로 됐다면 달을 비할할 시간이 어디있습니까. 탁마해야지요. 대중들이 모여 앉아 탁마는 할 지언정 뒤에 대고 비방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미래를 봐야 할 때입니다. 21세기 다가왔다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새 시대를 담을 아무런 틀이 마련돼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임시 처방을 해서는 병이 낫지 않습니다. 미래를 지양하는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합시다. 개인부터 불교계 전체가 의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리=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김 일 곤 (주)우광인전 소장

나의 직업은 매우 다양했다. 30대 초반까지는 직업군인이었고, 전역 후 건설회사 화약 발파기사, 중기관리사, 택시운전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까지 했다. 이 중에 택시운전자와 주택관리사 직업은 각양각색의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으로 마음먹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어느새 불혹의 나이가 됐고 42살 되던 해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거세졌다. 결국 불교수행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어렸을 적 나의 꿈은 신동자재한 도인이 되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출가 수행하여 꿈을 이루리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항상 부처님을 그리며 살아왔던 것이다.

가시 경계를 보게 되었다. 기도만 하면 소원성취가 쉽게 이루어져 경제적 이득을 보는 등 이러한 체험을 자주 하게되자 독음이 재미가 붙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기복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예를들면 나는 부처님 잘 믿어서 복만 오고 재앙은 안온다. 난폭 운전해도 교통법규 안지켜도 부처님이 봐줘서 위법태료를 부과 받지 않고 사고도 안난다. 또 내가 산 주식은 무조건 올라서 고수익을 얻는다. 기도만 하면 뭐든지(육치 않은것까지도) 다 된다... 이런 사고가 썰터 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 것이었다. 이 무렵 아파트를 분양받아 일산 신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금강경>

“네 한마음 닦아 성불하라” 금강경 참뜻 새기니 기복 벗어나

<금강경> 등 경전과 불서를 구입해 집에서 공부하고 참선도 해 보았으나, 곧 독학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지식을 만나 수도하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던 중에 '금강경 독송회' 서울법당을 알게 되어 <금강경>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처음엔 뜻도 잘 모르면서 하루 금강경 7독과 1~2시간 정근하는 수행법을 5~6년간 꾸준히 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수마와 싸우면서 공부 시작되었고, 직장근무를 제외한 시간은 거의 <금강경> 수지독송으로 보냈다. 따라서 가족과 주위에서 너무 깊이 빠져 들었다며 독송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 공부생 마음을 지양하게 잘 바쳐서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니, 그런데 공부가 조금 깊어지면서 부처님의 광명성, 신비한 체험과 여러

공부를 계속해서 더욱 깊이 있게 해 보겠다는 원이 있어 만난 곳이 생활속에서 <금강경>을 실천하고 있는 '바른법 연구원'이었다. 사실 그동안 <금강경>의 내용을 잘 모르고 달달 외우다시피 독송을 해왔는데 '바른법 연구원'을 다니면서 경전내용을 하나하나 익혀 나갔다. <금강경>의 참뜻은 '네 한마음 닦아 성불하라'는 것이 핵심이고, 경의 내용을 알고 수지독송하는 것이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그때부터 기록적인 사고는 철저히 부서졌다. 우리가 <금강경>을 바르게 공부하다 보면 복은 부수적으로 저절로 따라 오는 것이니, 탐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특히 평소 <금강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설서를 여러 권 사보았지만 똑같은 구절을 두고도 해설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책을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이곳 바른법 연구원에서 <금강경>을 현대인에 맞게 해설한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이 나왔다. 어쩌나 고맙고 반갑던 지 이 책으로 직접 강의도 듣고 공부하여 그동안 쌓여있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 수 있었다.



땀 흘리지 않는곳에 깨달음 열매 없어 확고한 믿음 깨달음 향한 씨앗입니다

간동안 줄곧 잊지않았던 것이 유년시절 영은사 주지스님께서 일러주신 '관세음보살' 염송이었습니다. 본래의 내 모습과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입에 달고 다녔지요. 이윽고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자리를 다독였습니다. 부처님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편은 산중 선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수행하는 사람만이 수행자가 아닙니다. 주위의 불자들을 보면 산승들만 수행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심에 있는 스님들은 모두 수행자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스님들처럼 언제나 중생들 편에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수행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란 산과 도심을 떠나 처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선지식이 태어나는 것은 그분 스스로만 된 것만은 아

습니다. 사실 감초는 그 자체로는 좋은 보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초가 보태 집으로써 약의 가치는 더 높아 지는 것입니다. 승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나없이 좋은 보약만 찾으면 안됩니다. 감초처럼 요소소소에 꼭 필요한 수행자가 될 때 불교는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도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고 해서, 참선 습관이라고 해서 다 수행자는 아닙니다. 무엇이 하고자 하는 마음 즉 신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신심을 내 잡자는 것 잊어버리고 송곳이라도 찔러서 도를 닦아야 할 형편인데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러 옵니다. 그러나 내 정신은 아픈데로만 갑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수

도 수행이나 포교 못지 않게 중차대합니다. 스님들은 물론 재가 신도들도 우선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근본을 꿰어차지 공덕을 앞세우는 것은 멀리 돌아가는 길입니다. 특히 스님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런 것을 해야하고, 마음가짐을 이렇게 해라.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부처님 사상에 맞게 솔해 주어야 합니다. 지혜의 눈을 열도록 하기 위해 교화하라는 것입니다. 열불을 외우면 공덕이 크다는, 사경을 하면 그 공덕이 높다 등 공덕설만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포교현장을 보면 우수한 일이 많습니 다. 부처님 마음을 따라서 실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 다. 스님을 마치 병을 고치는 의사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신도들은 가까운 사찰을 가

Advertisement for 'Modern Marriage Research Institute' (현대결혼연구원) featuring a woman's portrait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손해보험 대리점 설계사 모집' (Insurance Agency Recruitment) listing qualifications and contact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Sukkot' (스콧) health supplement, highlighting its benefits and availability.